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분석

1교시 국어 영역

1. 국어 영역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전체적인 체제는 큰 틀에서 볼 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초를 유지하였다.
2. 독서 영역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어려웠을 것이다.
3. EBS와의 연계율을 예년 수준(70%)으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문의 유사성 등을 통해 체감 연계도를 높였다.

이번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에 기초하여 '대학 과정의 학업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한다고 하는 원칙에 충실하려고 한 노력이 보인다.

지문과 문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등 고등학교 선택 과목별 교과서의 학습 목표라든지 학습 활동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변형해서 출제되었다. 특히 문항과 지문을 설계할 때 지문을 연계시키거나 혹은 문항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EBS 연계교재에서 상당 부분 출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45문항 중에서 32문항이 EBS 교재에서 출제되어 연계율이 71.1%나 되었다. EBS 교재와의 연계 방법을 보면 화법과 작문 영역은 주로 문항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였고, 문법 영역은 주로 개념 원리를 활용하였고, 문학 영역은 작품과 선지를 활용하였고, 독서 영역은 지문에 제시된 내용을 상당 부분 활용하였다.

6월 모의평가의 체제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초를 상당히 유지하였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각각 5개씩의 문항이 출제되었고, 독서 영역에서는 제재 간 통합 형태의 융합 지문이 포함된 3개의 지문에 15개의 문항이 출제되었고, 문학 영역에서는 장르 간 복합 형태를 띠면서 4개의 지문에 15개의 문항이 출제되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유사하였다. 다만 2017학년도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던 것이,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각각 1개의 지문과, 화법과 작문을 통합한 1개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 이것이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6월 모의평가를 난도면에서 본다면 2017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타 영역에 비해 독서 영역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을 소재로 한 기술 지문 분야는 비록 EBS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지만 정보량이 많고 배경지식이 필요해서 수험생들이 문항에 접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소재로 한 사회 지문의 23번 문항은 지문의 내용보다는 <보기>의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소재로 한 문항도 수험생들이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게 판정된다.

2. 세부 출제 경향

1) 화법과 작문

2017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볼 때, 화법 영역은 문항의 개수와 배점 등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화법에서 2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던 것이, 1개는 작문과 통합이 된 형태로 출제되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문항은 5개의 문항(1번~5번)이 출제되었는데, 학생 발표와 인터뷰로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였고 실제적인 화법 능력을 평가하면서도 독화와 대화의 화법 형태를 모두 구현하였다. 지문의 내용은 ‘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에 관한 발표를 소재로 한 문항(1번~3번)과, ‘학생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소재로 한 문항(4번~5번) 등을 구성하여 수험생들의 흥미를 높이려는 흔적이 보였다.

작문 영역도 2017학년도 수능과 비교해 볼 때, 지문의 구성 방식이나 문항의 개수, 배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작문에서 2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던 것이, 1개는 화법과 통합이 된 형태로 출제되었다. 총 5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동아리 소식지에 실을 글의 작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글의 작성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실제적인 작문 능력을 묻는 문항으로 설계되었다. 지문의 내용은 ‘아이디어 창출 모형에 대한 설명문’을 소재로 한 문항(6번~7번)과, ‘여름 방학 기간 단축에 대한 기고문’을 소재로 한 문항(8번~10번) 등으로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작문 작성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특히 ‘여름 방학 기간 단축에 대한 기고문’을 소재로 한 지문은 화법의 토론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 수험생들에게 화법과 작문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화법과 작문에서 있었다. ‘학생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이를 활용한 ‘설명문 쓰기’을 소재로 한 4번~7번 문항은 인터뷰를 통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설명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함으로써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의 통합적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2) 문법

문법 영역은 총 5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음운에서 문장, 그리고 중세 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항을 설계하여 어느 한 분야에 집중되기보다는 문법 분야 전반에 걸쳐 출제하였다. 문항은 ‘단어 의미의 상하 관계’를 소재로 한 문항(11번~12번), ‘음운의 변동’을 소재로 한 문항(13번),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소재로 한 문항(14번),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한 탐구’를 소재로 한 문항(15번) 등이 출제되었으며 5개 문항 모두 EBS 교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2017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총 5개의 문항으로 출제되면서 1개의 지문에 2개의 문항이 엮여 출제되었다. 고전 문법도 2017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1개의 문항만 출제되었다.

3) 독서

독서 영역은 총 15개 문항(16번~25번, 30번~34번)이 출제되었는데, 지문의 개수는 2017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3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율곡의 이기론’과 법제개혁론’을 소재로 한 융합(철학, 역사, 법학) 지문(16번~21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소재로 한 사회 지문(22번~25번),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을 소재로 한 기술 지문(30번~

34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재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이 중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소재로 사회 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EBS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독서 지문에서는 2017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융합 지문이 출제되었다. 이 지문은 ‘울곡 이이의 이기론과 법제 개혁론’을 소재로 한 것으로, 이기론에 대한 철학적 설명과 울곡 이이가 주장한 법제 개혁론의 역사학적 설명을 융합한 지문을 제시하여 동일한 화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 있다.

4) 문학

문학 영역은 총 15개 문항(26번~29번, 35번~45번)이 출제되었는데, 현대시 제재, 고전 소설 제재, 현대 소설 제재, 고전 시가·고전 수필의 복합 제재 등 총 4개의 분야가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학적 시간의 특징’에 관한 글과 조지훈의 ‘고풍 의상’, 이수익의 ‘결빙(結氷)의 아버지’ 등을 소재로 한 현대시 지문(26번~29번), 작자 미상의 ‘적성의전’을 소재로 한 고전 소설 지문(35번~38번), 이호철의 ‘큰 산’을 소재로 한 현대 소설 지문(39번~41번), 주세붕의 ‘오륜가’와 이곡의 ‘차마설’을 소재로 한 고전 시가·고전 수필 복합 지문(42번~45번) 등 현대와 고전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이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이 중에서 조지훈의 ‘고풍 의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EBS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문학 영역에서는 두 가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2017학년도 수능에서 제재를 복합하여 출제되었던 것이 6월 모의평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2017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작품이 아닌 문학에 관한 글이 복합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다만 이렇게 복합된 지문의 경우 길이가 매우 길뿐만 아니라 문항 또한 6개의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문도 짧고 문항도 4개의 문항만 출제되었다.

3. 특징적인 문항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고난도의 문항(14번, 26번, 31번)이 특징적인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 **14번** - 문법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사례를 바탕으로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문장성분의 특징, 안은문장의 종류와 특징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선지에 ‘체언,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명사절, 서술절, 안긴문장’ 등 문법 개념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은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 **26번** - 문학적 시간에 대한 이론을 작품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가)의 문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 개념이 많아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나)의 작품에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 **31번** - 지문의 내용을 도식화한 <보기>의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그런데 <보기>의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두 가지 작동 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두 과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문단에서 설명되고 있

어, 둘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답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4. 난이도

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국어	약간 어려움	어려움

1) 전체 난이도

전체적으로 최근의 모의평가나 수능과 비교하여 약간 어렵거나 어렵게 출제되었다. 지문의 유형과 문항의 유형이 기존의 수능과 모의평가와 비슷하지만, 문법은 문법 지식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고, 독서 지문의 경우 정보량이 많고 정보의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2) 교과별 세부 난이도

① 화법과 작문

이번 모의평가의 국어 영역 중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화법과 작문 문항이다. 먼저 화법과 작문을 융합하는 문항이 출제되었다.(4번~7번) 특히 5번 문항은 인터뷰 내용이 글에 포함되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인터뷰 내용과 글의 내용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 7번 문항도 기존의 고쳐 쓰기 유형과 달라 어렵게 정답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존의 고쳐 쓰기 유형은 밑줄 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방안이 적절한지 물었는데, 이번에는 고쳐 쓸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고, 작문 전략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이처럼 기존과 다른 유형의 지문과 생소한 형식의 문항이 출제되어 다소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비교적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드는 자료 활용 문항이 출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문제 풀이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② 문법

작년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음운(13번), 단어(11, 12번), 문장(14번), 국어사(15번)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작년 모의평가나 수능처럼 지문이 제시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지문이어서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12번 문항은 약간의 상식을 바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풀다보면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13번은 <보기>에서 이론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선지에서는 대상이 되는 말의 음운 변동 과정이 제시되지 않아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 14번 문항은 수험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풀어야 하므로,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③ 독서

작년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인문, 사회, 기술 지문이 각 1편씩 출제 되었다. 독서의 총 지문 수가 3편이었던 작년 수능과 차이가 없다. 독서 영역에서 특이한 점은 EBS 교재의 연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과거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도 EBS 교재가 연계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제재를 차용했을 뿐 실제 내용은 EBS 교재와 크게 달라 연계 체감율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인문 지문의 경우 지문의 절반 정도가 EBS 교재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가져와 연계 체감율이 매우 높았다. 인문 지문에는 6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대부분 내용 확인 문항이어서 난도가 높지 않다. 기술 지문 역시 EBS 교재에 나오는 지문의 핵심 개념을 가져왔다. 다만 정보량은 많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부분이 많고, 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추가하여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또 31번은 원리 적용, 32번은 추론 문항이어서 상당히 난도가 높아 보인다. 사회 지문은 EBS 교재의 연계에서 빠져 있지만 지문이 짧아 독해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낯선 경제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④ 문학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작년 모의평가와 수능처럼 문학 이론이 제시된 지문과 갈래 복합 지문이 출제되었다. 다만 문학 이론이 작년 모의평가와 수능보다 길이가 매우 짧아서 마치 문항에 나오는 <보기>의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문학 이론을 읽는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 복합 지문도 고전 시가와 수필의 결합으로 이전에도 많이 보였던 형태로 큰 어려움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지훈의 '고풍의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작품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38번, 41번은 <보기>에 따라 감상의 적절성을 묻는 3점짜리 문항인데, <보기>가 EBS 교재에 유사하게 언급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5.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EBS 연계 교재	쪽수 / 문항
1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52쪽, 3번
2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73쪽, 3번
3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56쪽, 2번
4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96쪽, 4번
5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137쪽, 5번
6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134쪽
7		
8		
9		
10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140쪽, 3번
11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07쪽
12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07쪽
13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00쪽
14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11~214쪽 / 258쪽, 3번
15	수능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문법	227쪽, 1번
16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3쪽
17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3쪽
18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3쪽
19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73쪽
20		

21		
22		
23		
24		
25		
26		
27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52 ~ 54쪽
28		
29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52 ~ 54쪽
30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27쪽, 2번
31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26 ~ 227쪽
32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26 ~ 227쪽
33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228쪽, 3번
34		
35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306 ~ 309쪽
36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306 ~ 309쪽
37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306 ~ 309쪽
38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306 ~ 309쪽
39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61 ~ 163쪽
40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61 ~ 163쪽
41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61 ~ 163쪽
42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08 ~ 109쪽, 261 ~ 263쪽
43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08 ~ 109쪽, 261 ~ 263쪽
44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108 ~ 109쪽
45		

6.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41번	EBS 수능특강 문학 163쪽 2번
<p>41.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보 기>—</p> <p>『큰 산』에는 도시화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과도기적 상황이 드러난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데 더 관심을 둔다. 또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에 대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상이한 가치관 사이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p> </div> <p>① '고무신짝의 논리'가 '액땀'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p> <p>② '아내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렸다는 점에서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p> <p>③ '아내가 '완전히 펴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염려하는 듯한 모습에서, 사태를 합리적 방식으로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p> <p>④ '나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 싫다'고 하면서도 '남자 고무신'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설정에서, 가치관이 혼재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p> <p>⑤ 스스로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나'에게 '아내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응대하는 대화 내용에서, 합리적 자세로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군.</p>	<p style="text-align: center;">7001-0143</p> <p>02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보기』</p> <p>이 작품은 마당에 떨어진 고무신짝과 관련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작가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고무신짝을 던져 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만 해가 없으면 남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현대인들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소위 배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요소를 청산하지 못하는 당시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였다.</p> </div> <p>① '나'는 고무신짝을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리는 행위를 한 아내를 못마땅해하면서도, 자신은 불길해 보이는 '고무신짝을 만지기도 싫어'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군.</p> <p>② '나'는 '그 어느 집의 부부들' 역시 곳과 관련하여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자신에게만 해가 없으면 남이야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고무신짝을 담장 너머로 던져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p> <p>③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만 불길해 보이는 고무신짝을 '아웃집 담장 너머로 던'겨 버림으로써 전근대적인 요소를 청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는군.</p> <p>④ '이 액을 우리 부부끼리만 감당할 자신이 우리는 이미 없었다.'라는 '나'의 말은 소위 배운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군.</p> <p>⑤ '아름 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들어'신 아내의 모습을 통해 나만 아니면 된다는 현대인들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엿볼 수 있군.</p>

7. 6월 모평 이후 2018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자신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평가 기준이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를 정리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상위권 학습 전략

이번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특히 문법이나 독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대비할 영역도 바로 문법과 독서이다. 문법의 경우, <보기> 없이 각자 지닌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문법의 개념을 정확히 익히고 이를 적용하는 다양한 문항을 풀어 볼 필요가 있다. 또 독서의 경우, EBS 교재의 연계 체감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지문에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낯선 개념이 풀이 없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EBS 교재의 독서 지문을 분석할 때 관련 자료까지 찾아 읽음으로써 제재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중위권 학습 전략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살펴야 한다. 글을 정확히 제시 시간에 읽을 수 있지만 문항 풀이를 잘 못하는지, 글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지, 글을 읽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지 등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유제를 많이 풀어보는 훈련을 해야 하고, 글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독해 방법에 대한 학습부터 다시 해야 한다. 글을 읽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학생들은 어휘력을 늘리는 한편 글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또 중위권 학생들은 독서 중 철학, 문학 중 고전 시가, 문법 중 문장 등 취약한 부분이 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풀었던 모의평거나 모의고사를 확인하여 어느 영역이 가장 취약한지 파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능의 EBS 교재 연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EBS 교재에서 자신의 취약 영역의 지문과 문항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하위권 학습 전략

수능이나 모의평가의 국어 영역 평균 점수는 대개 70점에서 65점 사이이다. 기본 국어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45문항 중 절반 정도는 정답을 맞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위권 학생들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위권 학생들은 수능의 지문 유형과 문항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먼저 작년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지문과 문항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지문이 나오고 지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화법과 작문은 제시되는 지문이 어렵지 않으므로 문항 풀이 중심으로 학습하면 좋다. 독서 지문의 경우 매일 한 지문이라도 스스로 독해하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한다. 문법과 문학에서는 선지에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데, 이때 EBS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EBS 교재의 개념 학습 부분을 철저히 공부하면 선지가 좀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